

### 3 바다와 생물에 나타난 이상한 변화

**【깃소공장이 공장폐물을 바다에 흘려버려서 바다의 생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깃소공장에서는,1932 년부터 비닐 등의 원료로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생산과정에 생긴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이 공장폐수에 섞여서 바다에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물고기랑 조개들이랑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깃소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이 입증해져서 1950 년대 후반부터는 물고기가 물위에 떠있고,조개들이 죽어가고,해초가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특히 공장폐수가 버려진 미나마타만은 오염이 제일 심각하여,많은 수은을 포함한 오니가 바다밑에 쌓여갔습니다.

또한,시라누이해의 해안 부근에서는,물고기를 먹은 고양이들이 발광하면서 죽어가고,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먹이에 물고기를 섞어서 먹인 집들에서는 닭,돼지 등 가축들도 발광하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작은 생물들이 먼저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